

# 클래스가 다른 준중형... 고급스런 디자인+190마력

## 자동차 시승기

### 벤츠 'A220'

1월 2월 탑승감 기대 이상  
버튼 대신 손가락 터치 조작  
'삼각별' 세단 중 가장 저렴

메르세데스-벤츠가 '첫차' 시장에 뛰어 들었다. 주인공은 A클래스 세단. 국내에는 A220 단일 모델로 출시된다.

가격은 4000만원 안팎이다. 국산 준중형과 비교하면 다소 비싼 편이지만 '삼각별' 세단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다.

A220 세단을 직접 타봤다. 서울 시내와 자유로 등 고속도로를 아우르는 약 300km 구간이다.

A220 세단은 전장이 4550mm로 현대차 아반떼(4650mm)보다 작다. 그러면서도 휠베이스가 2730mm로 아반떼(2720mm)보다 길다. 그만큼 실내 공간을 잘 뽑았다는 얘기가.



벤츠 A220 세단.

/메르세데스-벤츠

실제로 1월과 2월 탑승감은 기대 이상이다. 전폭이 1795mm에 불과해 2열에 3명이 타기에는 다소 좁긴 하지만, 4명이라면 덩치가 있는 성인이라도 충분하다. 인조 가죽 시트도 벤츠의 대형 세단에 비할 수 있을 만큼 안락했다.

이 작은 차가 럭셔리 브랜드 '벤츠'임을 각인해 주는 부분은 단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다. 계기반과 센터페

시아 디스플레이를 통합한 와이드스크린 콕핏을 그대로 적용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시인성도 크게 높였다.

조작도 새롭다. 디스플레이는 물론 터치 스크린, 스티어링 휠 버튼도 일부를 터치식으로 만들었다. 전후좌우 버튼 대신 손가락을 사방으로 쏘아서 조작하는 방식이다. 왼쪽 버튼을 위아래



A220세단 실내 인테리어.

/김재용 기자

로 쏘아서 계기반 디자인을 바꿀수도 있는데, 운전자 취향에 따라 속도계나 엔진 회전, 디지털 방식 등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벤츠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차세대 M260 2L짜리 4기통 가솔린 엔진에 7단 DCT 변속기를 조합해 최고출력이 190마력, 최대토크도 30.6kg·m에 달한다. C클래스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준이다.

가속 능력은 시내와 고속도로 어디서나 수준급이다. 공차 중량이 1500kg에 가까워 출발이 다소 늦을까 우려했지만

기우였다. 오히려 고속에서는 동급 모델 비교해 훨씬 안정적으로 달릴 줄 알았다. 같은 모델인 A클래스 해치백보다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정도다. 전륜구동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ADAS)은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시스템'을 선택할 경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과 차선 이탈 방지(LFA)를 사용할 수 있다. 차선 유지를 해주지는 않아서 자율주행으로 쓰기는 어렵지만 안전 운전에는 큰 도움을 준다. 사각 지대 경고와 교통 표지판 인식 기능도 있다.

내장 내비게이션 부재는 아쉬움을 남긴다. 필수적으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해야 하는데, 무선 연결을 지원하지 않아 이따금 연결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칼럼식 변속기도 선호도가 갈리는 부분이다. 벤츠의 특징 중 하나이지만, 운전이 미숙한 초보 운전자에는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KT 기업부서 박윤영 사장(왼쪽)과 육군사관학교 정진경 교장이 MOU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T

## KT-육군사관학교, 5G·AI 스마트캠퍼스 구축 MOU

### 첨단 과학군 변화·스마트 정예장교 육성

5G 전용망 구축·사업 구체화 추진

KT는 지난 8일 육군사관학교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본관에서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첨단 스마트캠퍼스 구축과 군 정보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윤영 KT 기업부서장과 정진경 육군사관학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MOU를 계기로 양 기관은 5G 전용망 구축과 세부 과제 발굴, 사업 구체화를 통해 육군사관학교를 5G,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첨단 스마트 캠퍼스로 변화시키기로 했다.

육군사관학교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과학군으로의 '도약적 변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KT와의 기술교류와 사업협력이 이러한 변혁을 한 단계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윤영 KT 기업부서장 사장은 "KT의 5G 네트워크와 ICT 사업역량을 동원해 육군사관학교의 도약적 변혁과 스마트 정예장교 육성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넷마블, 전 직원 정상 출근 체제 전환

발열자 등 유증상자 계속 재택근무

넷마블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을 위해 시행해오던 주 3일 출근제를 오는 11일부터 전 직원 정상 출근 체제로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넷마블은 지난 2월 27일부터 40여일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한 후 4월 20일부터는 주 3일 출근·주 2일 재택근무를 진

행해왔다.

넷마블은 정상 출근 체제 전환 후에도 임신부, 37.5도 이상의 발열자·인후통 등 유증상자는 계속 재택근무를 유지한다.

넷마블은 "임직원들의 안전한 출퇴근 및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강력한 예방조치를 지속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 한화솔루션, 고순도 XDI 국산화 성공

(고기능 광학 렌즈 소재)

日 기업 독점 기술 자체 개발 성공  
폴더블폰 등 활용 분야 무궁무진

친환경 에너지·소재 기업인 한화솔루션이 고부가가치 화학 소재인 자일릴렌 디이소시아네이트(XDI)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동안 일본 기업이 독점 공급하던 고기능 광학 렌즈 소재를 수년에 걸친 노력 끝에 자체 기술로 개발해 상업 생산에 들어간 것.

한화솔루션은 이달부터 전남 여수사업장에서 고순도 XDI의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여수사업장의 생산 규모는 연 1200톤이다. 한화솔루션은 이에 따라 일본 미쓰이케미칼(연산 5000톤)에 이어 세계 두 번째 XDI 생산업체가 됐다.

XDI는 폴리우레탄의 주원료인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의 한 종류다. 특히 순도 99.5% 이상인 고순도 XDI는 범용 이소시아네이트 대비 10배 이상 비싼 고부가 소재다. 투명성과 굴절성이 우수해 기존 렌즈보다 약 30% 얇고 선



한화솔루션의 XDI 연구소.

/한화솔루션

명한 고기능 광학 렌즈의 원료로 주로 사용된다. XDI를 활용한 고부가 제품이 늘면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광학 렌즈 생산업체들은 한화솔루션이 고순도 XDI 국산화를 성공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고품질 원료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미쓰이케미칼의 시장 독점으로 XDI 수입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 또한 한화솔루션은 광학 소재 분야를 시작으로 XDI 거래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스

마트폰으로 주목받는 폴더블폰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폴더블폰 디스플레이 패널용 소재인 OCA(광학용 투명 접착 필름), 고기능 잉크, 도료, 친환경 식품포장용 접착제, 전자 제품 포장 필름 등으로 활용 분야가 넓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국내 광학 렌즈 업계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신사업인 '비전 케어'(고기능 광학 렌즈) 소재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국내 에듀테크기업, 지금이 해외 진출 기회"

한국무역협회 노하우·IT기술 충분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가 온라인 교육에 관심을 쏟고 있는 만큼 국내 에듀테크 기업들도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듀테크는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IT 기술과 교육 서비스가 융합해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 분야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이 10일 발표한 '에듀테크 시장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는 수학·외국어 교육, 영유아 학습시장 등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우수한 IT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워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인 국내 에듀테크 기업들에 코로나19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에듀테크 시장규모는 2018년 1530억 달러에서 2025년 3420억 달러까지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며 미국, 중국, 영국 등 에듀테크 선진국들은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에듀테크 인프라 구축과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도 에듀테크를 도입하면서 제품의 프리미엄화와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다.

B사는 전자책과 태블릿 PC를 활용해 언어에 구애받지 않는 에듀테크 플랫폼을 구축했다. 교사·학생 간 양방향 수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살려 정부의 공적개발 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베트남, 중국 등의 교육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에 나서면서 맞춤형 학습 서비스, 게임 기반 학습, 외국어 교육, 코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